

「한반도 평화공존센터」 설계공모 실시

- 건축으로 여는 공존의 시대, 거장들의 창의적 해법 기대 -

【관련 국정과제】 115.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

□ 통일부 「한반도 평화공존센터」 건립사업의 설계공모 절차가 9월 3일(목), 조달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.

○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는 분단의 역사와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를 되짚어보고, 실향민·북향민의 삶과 기억을 담아내는 체감형 복합문화공간이다.

- 센터 내에는 전시·체험·교육·아카이빙 기능과 함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정책 공론장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.

□ 앞서 통일부는 1단계 후보자 공모를 거쳐, 국내외 건축계를 대표하는 총 7개 팀을 지명공모 대상자로 확정된 바 있다.

○ 본 공모에는 국내외 정상급 건축가*들이 대거 참여해 수준 높은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.

* 마누엘 아이레스 메테우스 : 이재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/ 스위스 로잔 엘리지 미술관·무악 설계

* 민현준 : 건축사사무소 옴피아트·운주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/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설계

* 전숙희 : 건축사사무소 와이즈 / 어둠속의 대화 북촌 설계

* 승효상 :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/ 사유원 명정 설계

* 조민석·권경민 : 건축사사무소 매스스터디스 / 영국 서펜타인 파빌리온 2024 설계

* 조정구 : 건축사사무소 구가도시건축 / 진관사 템플스테이 역사관 설계

* 최옥·황선영 : 건축사사무소 원오원아키텍스 /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설계

- 지명된 7개 팀은 건축가의 경험 및 역량, 과제에 대한 제안, 제안서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으며, 이를 바탕으로 최종 당선작이 선정된다.
- 구체적인 일정은, 9월 3일(목) 설계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9월 30일(수)부터 10월 1일(목)까지 공모안을 접수하고 10월 15일(목) 설계공모 심사를 진행하는 순으로 추진될 예정이다.
 - 통일부는 최종 당선팀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, 11월부터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.
- 통일부 관계자는 “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공존의 가치를 구현할 상징적 건축물이 탄생할 것”이라고 하며, “최고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평화교류실 한반도평화공존센터기획팀	책임자	팀 장	정연주 (02-2100-5490)
		담당자	주무관	안상찬 (02-2100-5492)

